

첫째 되는 계명

말씀 : 마가복음 12:18~44

요절 : 마가복음 12:29,3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 서기관, 가난한 과부가 차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속한 사회적인 지위만큼이나 그들의 신앙생활도 큰 편차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왜 누군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가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현실에 안주하며 오로지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에 집착하며 살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크기나 분량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달라지고 사랑도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들의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더욱 깊어지고 커질 것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알려주십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18-27)

18절을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사두개인이란 이름은 다윗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에게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하 15:24, 왕상 1:32)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고, 다른 성경과 구전을 배격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부활이나 천사나 영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행 23:8) 자연적으로 그들은 현실생활에 대해 밝았고 합리적인 헬라사상도 잘 받아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에 많이 진출하고 로마의 정치세력과 잘 타협하여 성전 운영권도 위임받았으며 그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치면 울로족입니다. 한번 뿐인 인생, 미래에 투자하기 보다 오늘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오늘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지도자들로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냉랭했습니다. 사랑이 없고 거짓되고 위선적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19-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질문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긴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요약하면 칠 형제가 한 여자와 차례로 결혼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첫째의 아내가 된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신 25:5,6)을 기초로 만약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서 한 여자를 두고 일곱 형제가 서로 싸우는 참극이 벌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24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당시 최고 종교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직구를 날리셨습니다. 성경에 분명 부활의 진리가 있는데 그들은 피상적으로만 봤다는 말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거나 알지 못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보셨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부활 시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천사들과 같다고 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선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고 하니 다소 실망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의 눈으로 보면 천국은 정말 재미가 없는 곳입니다. 결혼도 못하고 또 축구도 못하고 TV도 없고 베툴그라운드나 오버워치 게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리나 박순자늑두집 같은 맛집도 없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현실의 삶이 지속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어서 사라져버리고 싶은 것이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 중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출 3:6)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그런 하나님이었다가 아닙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시에 생존해야 표현이 가능한 문장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는 2천 년 전에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고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자들이 살아있습니다. 세상에서

호위호식하며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말씀을 공부할 때 한목자님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활의 믿음도 없이 살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두개인의 비극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과 정욕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지도자들이었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같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II. 첫째 되는 계명 (28-37)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잘 변론하신 것을 듣고 한 서기관이 평소 궁금하였던 질문을 하였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28b) 모세의 율법에는 613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당시 율법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말씀도 요절 말씀이 몇 절이냐에 따라 말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핵심이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나 성품이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29,30절을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6:4,5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는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와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둘도 없고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주가 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유한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인생들의 참된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돈이나 세상 명예나 권세를 유일한 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첫째 계명은 ‘돈을 벌여라,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을 유일한 주로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헛된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사람들이 많은 문제로 고통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롬3:23).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므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요3:16, 뱀전1:3,4). 사도 바울은 내면의 죄와 죽음문제로 고통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1,2)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그 누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보호해 주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해 줄 수 있습니까? 동역자가 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 해 주고 싶지만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앓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시139:2).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항상 감찰하고 계십니다(잠15:3).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롬5:8).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롬8:38,39).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능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롬8:28). 시편기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best way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사랑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유일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30)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또는 ‘날마다 새벽기도하고, 매주 소감을 써라. 목자심정을 갖고 일대일을 해라’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영어로 보면 마음은 heart, 목숨은 soul, 뜻은 mind, 힘은 strength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마음과 생명과 지성과 육체적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속한 유한한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일2:15-17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 찬양~ 주 찬양~”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마 5:8) 돈과 명예와 정욕으로 마음이 지저분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따라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소감을 써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여 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 놓으시고 이 땅에 낮아져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빌2:6-11).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기 위해 겻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요17:1,4)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나의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 분이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첫째 계명에 순종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두신 뜻과 사명은 매우 인격적입니다.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요21:22)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열두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사랑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를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함은 우리의 온 인생을 바쳐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주님의 양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면 양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양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말씀공부를 포기하고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때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 학기 하나님 사랑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체적으로 한양을 섬기는 목자로 살아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첫째 계명에 이어 서기관이 질문하지 않은 둘째 계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같이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둘째 계명까지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일 4:20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강도 만난 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실제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눅 10:30-37).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재림 후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무리에 속한 오른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보았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31-46) 이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위에서 영육간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웃은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시작하여 자녀들, 부모님, 믿음의 형제자매들, 양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도록 보내주시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웃의 영육간의 필요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무관심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면 보이게 됩니다. 조선시대 한 문장가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 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요한복음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포인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로 병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병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영적 무지와 세상 정욕으로 인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사랑을 덧입을 때에만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톨릭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을 제 자신과 같이 또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은 깊은 공감을 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34) 말씀하셨습니다. 35-37절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III. 가난한 과부의 헌금 (38-44)

38-40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며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중한 벌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41,4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렵돈을 넣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화폐단위를 보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 데나리온이었고, 1데나리온=16앗사리온, 1앗사리온=4고드란트, 1고드란트=2렵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렵돈은 대략 오늘날 1000원~1200원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있어서 두 렵돈은 생활비 전부에 해당하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43,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적은 헌금을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대하16:9). 또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마6:33).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그토록 찾았던 첫째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또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